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MILO MOSS IS OFFICIALLY UN-AMAZING

가제 : 밀로 모스는 정말로 위대하다

저자 : Lauren Allbright

출판사: Little, B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20년 9월 1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성장소설



**\* 평생의 꿈이 기네스 기록인 한 가족과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는 한 소년의 도전기**

열두 살의 밀로 모스는 가족의 평생 목표인 기네스 세계 기록을 깨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 생활도, 가족의 꿈을 이루는 것도 밀로의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밀로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네스 북 세계 기록에서 밀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거대한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아주 작은 땅과 얽힌 이야기였다. 영국 인근에는 '비숍 락 (Bishop Rock)'이라는 작은 섬이 있었는데 이 섬은 겨우 테니스 코트만한 크기밖에 되지 않은 크기에 불과하고 IT 기반 건물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섬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옛날, 이 곳을 향해하고 있던 뱃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길이 아주 순조로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 배는 이 작은 섬과 부딪혀 배를 부숴버렸고 그 이후에도 여왕이나 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탄 배에도 부딪혀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얼마 후 이 곳에 등대를 짓기 위해 사람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이 끝없는 바다 한 가운데에서 7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거센 파도에도 끄떡하지 않을 최고의 등대를 만들었다. 이 등대는 훗날 '등대의 왕'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덕분에 이 작은 섬은 기네스 북에 등재 되었다. 밀로는 그 전에 있었던 슬한 실패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공 신화를 갖게 된 이 섬에 대한 이야기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자신은 물론 부모님까지 언젠가 기네스북에 기록될만한 일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었고 가족 모두가 바퀴벌레 복장을 하고 있는 이유였다.

밀로는 부모님과 함께 차에 타 떨리는 마음으로 최신판 기네스북을 읽고 있었다. 밀로의 아버지가 가장 동경하는 기네스북 속 인물은 아이언맨처럼 신체 제어 제트 엔진 수트를 입고 시속 32 마일을 날았다는 로버트 브라운이었다. 그는 실제로 아이언맨 수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플라잉 수트 '데들루스'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마라톤 선수이자 엔지니어였다. 밀로의 아버지는 밀로

만큼이나 기네스북 신기록을 달성하는데 온 관심을 쏟고 있었다. 밀로네 가족은 드디어 목적지인 축구 경기장에 도착했고 모두들 각자 입고 있는 바퀴벌레 의상을 꼼꼼히 체크했다. 그곳에는 메뚜기, 나비, 거미와 같은 커다란 크기의 벌레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밀로는 등 뒤에 붙은 플라스틱 날개 때문에 몸에 바람이 통하지 않자 점점 땀을 비 오듯 흘리는 바람에 시야마저 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온몸에서는 이미 불쾌한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게다가 바람 때문에 구부러지고 있는 부모님 의상의 더듬이 장식을 보니 마음이 더더욱 초조해져만 갔다. 하지만 밀로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 곳에 모인 2,000명 이상의 곤충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곤충 옷을 입고 모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며 곧 세계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그 냄새는 점점 퍼져갔고 밀로는 이 냄새가 자신에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밀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를 막고 있었다. 얼마 후 스피커에서는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고 사람들은 혹시 가스 누출이라도 일어난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공포에 질린 채로 다들 미친 듯이 경기장 밖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결국 밀로네 가족의 도전은 너무나 어이없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밀로는 가족들과 최대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한편 밀로의 친구 제시는 계속해서 밀로에게 세계 기록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는지 묻고 있었다. 밀로는 그 메시지를 보자 다시 초조해졌다. 이제 막 새 학교에 전학 온지 6주 밖에 되지 않은 밀로는 이미 친구들에게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노라고 호언장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내일 학교에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착잡했다.

다음 날, 밀로는 억지로 학교에 갔다가 지각하고 말았고 교장 선생님과 면담 자리를 가져야 했다. 그는 말로에게 이 학교의 최고의 목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증명하기 위해 언제나 최고의 성적을 유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가 보기엔 말로가 이미 결석 횟수도 많은데다 다음 3월에 있을 중요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엔 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밀로는 겉으로는 의연한 척 하려고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뿐만 아니라 수업에 겨우 들어간 밀로는 자신과는 짝을 하려 하지 않는 브랜든 때문에 선생님께 지적을 받은 후 방과후에 따로 브랜든과 선생님을 찾아가 성가신 숙제를 해야만 했다. 게다가 제시는 억지로 밀로를 복도로 끌고가 기네스에 관한 이야기를 크게 떠들며 사람들이 밀로를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밀로는 대중들로부터 굴욕을 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기네스 기록을 향한 광기를 끊어내야 했다. 하지만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도움 역시 필요했다. 밀로는 과연 기네스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까? 아니면 때로는 인생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까?

#### <저자 소개>

로렌 올브라이트 (Lauren Allbright)는 『Exit Strategy』의 저자이다. 그녀는 책을 쓰지 않는 시간에는 7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미국 달라스에서 살고 있다.

제목 : A KIND OF SPARK  
가제 : 별나도 괜찮아  
저자 : Elle McNicoll  
출판사: Knights Of  
발행일: 2020년 6월 4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성장소설



**\*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한 매력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동시에 다정하고 재미있는 소설. 모두들 작가 엘르 맥니콜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베스트셀러 작가, 수잔 닐슨**

열 한 살 소녀 애디는 남들과는 많이 다른 아이였다. 애디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다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을 상대하느라 지칠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애디는 자신이 살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마녀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한 수 많은 여성들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다.

수업 시간, 같은 반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까지 애디의 글씨체를 지적하면서 애디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애디가 쓴 글을 공개적으로 소리 내어 읽고 있었다. 이는 원래 이 수업을 맡았던 브라이트 선생님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하지만 브라이트 선생님이 병가를 내는 바람에 대신 수업을 맡은 머피 선생님은 애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계속해서 애디의 글을 보며 왜 이렇게 엉뚱한 내용을 쓴 것인지 추궁했다. 이런 순간마다 애디는 언제나 자기 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주는 언니 키디가 나타나 애디의 속마음을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한 없이 작아져 버린 기분이 들었다.

이런 날이면 애디는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점심 시간 내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애디의 귀에는 모두가 자신을 향해 고향을 지르는 것처럼 느껴졌고 작은 소음도 드릴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예민해진 날이면 어서 조용한 은신처로 몸을 피해야 했다. 평범하게 복도를 오가는 일조차 애디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애디가 느끼기엔 지나치게 사람들이 자신의 곁으로 밀착하려는 것 같았고 그럴 때마다 애디는 점점 목부터 열기가 올라오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도서관이라는 장소는 언제나 조용했고 모든 책들이 종류별로 알맞은 곳에 정확하게 정리 되어있었기 때문에 애디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편안함을 선물해주는 곳이었다. 게다가 그곳에는 언제나 애디에 친절한 앨리슨씨가 있었다. 애디는 모든 단어를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애디는 ‘친절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바로 도서관 사서 앨리슨씨의 모습을 곧 바로 머리 속에 그릴 수 있었다. 앨리슨씨는 늘 애디에게 의례적인 따분한 인사치레 대신 애디의 흥미를 자극할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는데 오늘은 애디가 좋아하는 상어가 바로 이야기의 주제였다. 앨리슨씨가 읽어주는 백과사전

에 따르면 상어는 공기 중에 흐르는 전류를 감지하고 아주 먼 곳에서 풍겨오는 피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놀라운 존재였다. 상어 역시 애디처럼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가진 동물이었던 것이다.

얼마 후, 할로윈이 다가오고 있었고 머피 선생님은 할로윈을 맞아 애디버러를 비롯한 스코틀랜드 곳곳에 존재했던 마녀와 마녀 사냥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말했다. 애디는 칠판에 적힌 '마녀'라는 글자를 보자 갑자기 엄청난 흥미가 생겼다. 하지만 선생님이 들려주는 마녀 재판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마녀 재판이 한창 유행일 당시, 마녀로 의심 받는 사람들은 일단 손 발이 묶인 채로 호수에 던져졌고 만약 익사하지 않고 호수에서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에는 진짜 마녀로 판명되어 물에서 건져진 다음 화형을 당하거나 교수형을 당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시 여성들이 마녀로 의심 받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평범한척 하며 최대한 남들의 시선을 끌지 않도록 숨죽여 사는 것뿐이었다. 그 말을 듣자 애디는 아까의 흥분은 사라지고 그 끔찍한 일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 애디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서도 별로 중요하거나 함께 화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자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이어 머피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남들과 조금만 달라 보여도 바로 마녀 재판에 끌려갔다고 설명하자 애디와 같은 반 학생인 에밀리는 만약 애디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불에 타 죽었을 것이라며 킁킁거리고 아이들은 물론 머피 선생님까지 그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다. 애디는 자신을 향한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머피 선생님에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는지 진지하게 물었다. 그러자 머피 선생님은 지금 애디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만 50명의 여성들이 마녀 재판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애디는 선생님에게 그렇다면 혹시 이 마을에 억울한 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한 번 애디를 비웃으며 그런 일 따위에는 추모비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쏘아 붙였다.

애디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다시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애디는 엘리슨씨에게 마녀와 관련된 모든 책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애디만이 이 일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애디처럼 늘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던 반 친구인 오드리 역시 도서관으로 찾아와 애디와 함께 마녀 재판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애디는 마녀 재판 관련 조사를 하면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이 사회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애디는 마녀들에 얽힌 숨겨진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열기로 다짐했다. 애디는 자신을 둘러싼 편견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까?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던 한 소녀가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주장하고 찾아나가면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다.

#### <저자 소개>

엘르 맥니콜 (Elle McNicoll)은 현재 이스트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인 작가이다. 그녀는 신경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작가로서, 장애인의 권리와 그 권리를 대변하는 일에 대해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UCL의 신경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소설을 쓰지 않을 때에는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이 소설은 그녀의 데뷔작이다.